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Establishing and Sharing(Networking) ‘Jeju Knowledge’ as Cultural Resources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고영자**

들어가며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통합과 경쟁이 가속화되는 21세기야말로 ‘문화혁명’의 시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과거의 지(知) 및 가치 패러다임이 여러 변칙사례들의 등장과 더불어 위기를 맞고, 그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하나의 믿음-지식-사고-의 체계)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세계화 그물망 속에 공존하는 제주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에 눈을 뜨고, 그에 따른 대안과 정책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이런 흐름 속에 ‘제주학(Jeju Studies)’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21세기 ‘제주학’이 확립하고 공유할 지(知) 및 가치 패러다임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이를 위해 발표자가 제시하려는 구체적인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1. ‘지(知)’의 성립1): ‘제주학’ 패러다임들

탐라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고려조, 1105년), 한반도 고려왕조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면서 탐라의 명칭이 지방을 뜻하는, 지금의 제주로 바뀌고(1192~1259), 이후 몽골의 제주 지배(1270~1368), 조선왕조의 통치(1392~1910), 일제강점기(1910~1945), 제주4·3항쟁(1948~1954) 등등의 술한 역사적 사건을 겪은 제주는 일찍부터 외부인들의 시선에 끊임없이 노출되던 섬이었다. 이들 외부인들의 시선에 의한 제주인식은 기록으로도 남아 외부세계에 적잖게 유포되어 제주 이미지 메이킹에 기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선시대 이래 제주 땅을 밟은 중앙관료나 선비 유배객들, 그리고 심지어 서구의 초기 여행자들은 제주를 두고 문화적 요소라곤 그 어디에도 없는 야만인들의 땅,

1) 한 국가 또는 공동체 ‘지(知)’의 성립과 관련한 필자의 사유는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의 저서 《日本近代 思想批判—国知の成立》(岩波現代文庫, 2003; 김석근 역 《일본근대사상비판: 일국적 지식의 성립》 역사비평사, 2007)을 기반으로 짚은 것임을 밝힌다.

당 오백 절 오백의 온갖 신들로 가득한 땅, 국적불명의 도적들의 섬(Ilhas dos Ladrones)²⁾, 바다로 에워싸인 절해고도(絶海孤島), 유배의 섬, 반란의 땅, 말(馬)의 고장 등등으로 폼페이하면서 제주도를 그들의 기록에 등장시키곤 했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 ‘서구에 의해서 구성된 비이성적이고 열등한 동양’,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 등등으로 요약되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³⁾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주’를, ‘서양’ 대신에 ‘중앙·육지·강대국’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제주는 ‘중앙·육지·강대국’에서 온 외부인에 의해 ‘발견’되고 ‘기록’되면서, ‘제주지’ 또는 이미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이드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의 형성에는 여행자들이나 모험가들이나 선교사들 외에도, 수많은 서구(외부)의 작가들, 지식인들, 예술가들, 군인들, 또는 정치가들이 참여했고, 제국주의 시대의 거의 모든 서구 강대국 작가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산출하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말한다. 제주 현지(local)에 대한 외부인들(outsiders)의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 ㉠ 삼국시대~조선시대(1) : 중국인, 조선조정에서 파견된 행정관료, 탐방객, 유배인
- ㉡ 1653년 하멜 표류 이래(2) : 유럽인 표류인, 항해가, 탐방객, 선교사, 연구자
- ㉢ 개항 전후(3) : 일본인 행정관료, 탐방객, 연구자 (유럽인+조선인 포함)
- ㉣ 일제강점기(4) : 일본인 조사원, 탐방객, 학자 (유럽인+조선인 포함)

1) 지(知)의 패러다임 확립 이전 제주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특히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학계는 기존 지식에 대한 지식, 나아가 지식 기반 체계 자체를 문제시하는 동시에 동서양 역사에 대한 접근이나 세계사를 새롭게 보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는다. 바로 그 기폭제이자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무수한 사상들,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 일국(一國) 또는 공동체 지(知)의 성립 관점에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⁴⁾와 그로부터 16년 후 나온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도적들의 섬’이란 명칭은 16세기 마젤란이 마리아나에 있는 괌 섬에, 또 드레이크가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퀘롤리나 군도에 붙인 것이었다. 동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을 따라 시작된 초기 개발시대와 같은 시기에 일본과 한국을 그린 유럽지도는 제주와 한반도 다도해를 포르투갈어인 ‘Ilhas dos Ladrones’ 즉, ‘도적들의 섬’이라 명명하였다. 데이비드 네메스 저(원서 1987년),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 고영자 역, 2012년, 제주시 우당도서관, p.190.

3) Said, E.W., 1978(초판),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2000년, 교보문고.

4) Kuhn, Thomas Samuel,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 조형 역(1980년), 김명자 역(1992년).



[그림1. 토마스 쿤에 따른 과학, 즉 학문-지(知)의 탄생과 그 발전과정을 시각화 © 필자]

‘제주학’이라 해서 이들 사유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사유는 ‘제주知’의 성립을 사상적·방법론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사유는 ‘제주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확립되기까지 ‘제주’가 처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시선과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어떤 ‘제주知’를 어떻게 확립하고 공유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시기별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중 특히 ㉠과 ㉡의 경우는 토마스 쿤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제주知’에 대한 ‘패러다임 없이’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예로 ① 제주도의 험한 자연지형과 이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을 알리는 기록들, ② 음사(淫祀)만 숭상한다는 기록들, ③ 제주도 여자들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의 험한 자연지형과 이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을 알리는 기록들

“제주도 삼읍(三邑)의 땅이 모두 한라산 기슭에 있어, 길이 험악하고 돌이 많고 메마르며 평토가 절반도 못된다.” “비록 낮고 큰 언덕이 있더라도 번잡하게 어지럽혀져 있어 분별하기가 어렵고 형세가 그물눈, 혹은 무덤을 어지럽혀 놓은 것 같다.”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 (1521년)

(이익태가 제주성 밖 ‘광양평’을 순시할 때, 여러 장리(將吏)들이 한결같이)

“이 섬은 모두가 돌무더기와 악석(惡石)의 구릉(丘陵)이지만, 오직 광양평만은……”

이익태 《지영록》 (1696년)

“이곳은 확실히 화산섬이다. 해안가에 접한 모든 곳들은 움푹 꺼져서, 거기엔 바늘로 찌른 듯한 구멍 난 암초들로 넘쳐난다. 해변도 마찬가지로여서 잦은 발길이 만든 길을 제외하고는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윌리엄 샌즈 《조선비망록: 동아시아 1896~1904》 (1930년)

② 음사(淫祀)만 숭상한다는 기록들.

“선생(충암)의 학문은 공자와 맹자를 따랐고, 뜻은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통하였다. 그러나 뜬 구름이 해를 가리자 떠돌이 신세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뜻만 품은 채 변방의 황량한 땅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풍속이 다른 이 고을은 어리석어 추모함을 알지 못한다. 차귀당遮歸堂이나 광양당廣壤堂의 음사淫祀만을 숭상하니, 이는 비단 이 백성들이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유교의 불행이기도 하다.”

임제 《남명소승》 (1578년)

“산과 숲, 내와 못, 물가와 평지, 나무와 돌 따위에는 모두 신사神社가 있다. 매년 정월 초하루로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무당이 함께 신을 모시는 깃발을 세우고, 악귀를 쫓는 나희儺戲를 벌이면서 징과 북을 앞세워서 마을에 드나들면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또 못 뱀들이 마룻대와 들보에 모이어서 열기설기 얽히는데, 제사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상서롭게 여긴다.”

이원조 《탐라지초본》 (토속편)(1841~1843년)

③ 제주도 여자들에 관한 기록들

“섬 지역 여인들이 물을 길어오는 것은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지고 간다. 하나의 긴 통을 만드는데 별통의 형상과 같고, 물을 길고 지고 가는 것은 보기가 매우 괴상하다. 오직 물 기르는 것뿐만 아니고, 무릇 이고 갈 수 있는 물품은 모두 등에 져 가는데 남자가 뿔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이건 <제주풍토기> (1632년)

“제주 지방 풍속에 노역하는 일은 여자를 시킨다. 2~3명, 혹은 4~5명이 함께 방아를 찧는데, 반드시 서로 방아질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음조가 몹시 애처롭다. 땀을 가는 노래 또한 그러하다.”

이원진 《탐라지》 (1653년)

“종종 먼 길까지 가서 물을 길어 날라 오는 것 또한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달려있다. 물을 운반하는 데는 넓고 낮은 ‘물허벅’을 바구니(물구덕)이 사용된다. 그 바구니(물구덕)는 양 어깨에다 끈을 둘러 등에 짊어진 후 운반된다. 나는 조선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본토에서 여성들이 등에 무언가를 지고 운반한다는 것은 매우 불쌍사나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A.A. 피터즈 <켈파트 섬 방문> (1897년)5)

“본디 악하고 사나워 싸우기를 좋아하여 남자들도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었다.”

“이 고장 여풍은 참으로 몹시 사납다.”

김윤식 《속음청사》 (1898년~1901년)

“여자들은 수영과 잠수에 능숙했다. 어리거나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이들은 큰 파도를 헤치며 해염을 치고, 바다 위에 띄운 박(테왁)에 망사리를 매달아 둔 채, 전복이나 식용 해초 다발을 따기 위해 물 속 깊이 들어간다.”

5) A.A. 피터즈(Pieters)는 미국인 선교사로 1897년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약 1 주일을 보냈다. 고영자 편역, 2013년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건문록(1845~1926)》 (제주시 우당도서관)에 수록됨.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제주 현지(local)에 대한 타지인(outsiders)의 기록들은 그렇다할 지(知)의 패러다임 없이 직·간접적으로 본 제주를 기록하고, 그 자체가 제주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가 되어 외부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제주지’의 성립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침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2) 패러다임의 정립~정상과학

앞에서 제시한 시기별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중 ㉔개항 전후와 ㉕일제강점기에 쓰인 기록물들은 근대=제국주의 팽창기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근대학문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야욕 속에 탄생한 것들이다. 19세기 중반부터 학문에 대한 종교적인 통제가 약화됨과 동시에 민족·역사의식이 싹트면서 역사학을 비롯한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언어학 등등의 개별학문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제국주의 국가들은 타국을 점령·지배하면서 다양한 토착문화와 폭넓게 접촉하게 되고, 착취와 지배의 수단으로서 해당 지역 ‘지(知)’의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는 당연히 ‘근대’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별학문들이 식민지에도 전파되었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일제강점기 전후 제주도를 방문하여 이를 조사·기록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이전 외부인들에 의한 제주 기록들이 ‘패러다임 없이’ 기록된 것에 비해, 이 시기부터는 ‘근대’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별학문 별로 제주도 조사·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① 아오야나기 고타로(靑柳鋼太郎):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 (1905년)
- ②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⁶⁾: 「濟州島紀行」 (1906년)
- ③ 오노 마사오(大野仁夫): 《남선보굴 제주도》 (1912년)
- ④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 고고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 1911년~1915년까지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반도 조사. 도리이는 인류학 뿐 아니라 석기·고분의 조사에도 적극적이었다. 1914년 5월에 제주 방문. 제주 입춘굿 시연 유리원판 사진 남김. 한편, 제주 체류 중 당시 도쿄대학 인류학자 이시다 슈조(石田收藏)선생 앞으로 보낸 자필 사진엽서(복신미륵, 일명 동자복 사진, 제주 건입동 소재)도 남아있다.
- ⑤ 이마무라 도모(今村軀, 1870~1943): 1915년에 제주 초대도사 겸 제주 경찰서장으로 4년 간 제주에 체류. 《조선풍속집》 (1914년)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우마>, <제

6) 영문학자. 1906년 동경제국대학 언어학과 입학. 1904년 통역원으로 곤충 동물학자 앤더슨(Anderson)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한라산 등반.

주의 전복>, <제주도의 질병>, <제주도의 사굴과 전설> 등.

- ⑥ 후지시마 카이지로(藤島亥治郎, 1899~2002): 고건축학자. 《조선과 건축》(일본어)이라는 잡지에 <제주도의 건축>이라는 타이틀로 4회 연재(1925년6월호~9월호)
- ⑦ 가지야마 아사지로(梶山淺次郎): 1928년5월 제주축항공사 시찰 겸 내도한 토목기사. 《조선》 160호(1928년9월호)에 수록된 「濟州島紀行」.
- ⑧ 쨌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조선총독부 촉탁. 《生活狀態調査》(2) 제주도편(1929년 12월)
- ⑨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 민속학자,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근무. 조선 체류 당시 주요 저작으로 《조선의 습속》(1929년), 《조선의 귀신》(1929년), 《조선의 귀신》(1929년), 《조선의 풍수》(1931년), 《조선의 巫覡》(1932년), 《部落祭》(1937년) 등.
- ⑩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15~1970): 인류학자. 1935년 12월에 한라산 적설기 등반차 경성제대 산악부팀 선발대장으로서 제주에 오고, 1936년 1월 1일 한라산 정상을 등반. 이후 1965년 30년 만에 제주를 재방문했고, 그것을 토대로 《濟州島》(1966년, 동경대학출판부) 출간.
- ⑪ 마스다 이치지(槌田一二, 1895~1974): 지리학자. 1930년대에 제주를 수차례 오가며 조사하여 제주의 인구, 지리, 취락, 해녀, 용천수 등을 상세히 연구. <제주도 해녀의 지지학적 연구>(1934년), <제주도에 있어서 축산의 지지학적 연구>(1934년), <제주도 취락의 지지학적 연구>(1939년)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은 《槌田一二 지리학 논문집》(1976년, 東京: 弘詢社)에 재수록 됨.
- ⑫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 1892~1946): 조선총독부/ 농업정책가. 1939년 5월에 와서 제주시가 및 한림부근 옹포리, 명월리, 그리고 서귀포 일대를 조사·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기구 스케치, 400여장의 농촌 풍경사진 및 방대한 필드 노트 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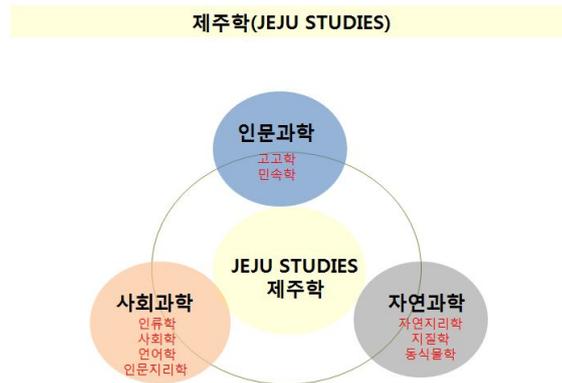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는 한라산 관련 전문 기행문에서부터, 제주도 총서,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건축학, 지리학, 농업환경 분야까지 다양한 개별학문들이 제주에 유입된다. 물론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기록은 이보다 훨씬 방대하며 거기에는 서양인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 역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 문헌 및 자료들은 ‘오리엔탈리즘’과 ‘근대(학문)’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생산된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해방 후 자국인(한국인·제주인) 연구자들에게 근대 제주를 연구하는 원천자료로 수용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에 관해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보고 있다. 염미경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제주학의 발전단계를 해방이후~1959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0년대 말로 시대구분 하면서, 각 시기별 태동한 연구분야, 연구단체 현황, 연구주제 등을 분석·정리하고 있다.⁷⁾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시기별

7) 염미경(2014년), <제주지역연구의 성과와 전지구화시대 제주학의 발전 방향> 《제주도 연구》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의 발굴과 번역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주학 연구 범위를 심화·확대하는 단계까지 왔다.

현재, 제주학 연구범위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까지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2010년 '제주학 연구자 모임'이 제주학의 범위와 지향점을 표방하는 글을 인용해보자. “제주학은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어야한다.....제주학 연구자들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인문지리학 등과 같은 인문·사회과학과 아울러, 자연지리학, 지질학, 동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새로운 연구성과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본인이 행하는 연구주제와의 합일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행해야 한다.”⁸⁾ 이를 시각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기존 제주학 범위와 위상 ©필자]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주학은 문화·예술, 재일제주인, 평화, 인권, 동아시아 해양 문화에 이르기 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화 시대 제주의 특수성을 보편적 차원으로 끌어내는 학제간의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요리에 비유해 본다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할 수 있는 재료들은 넘치는 반면, 이들 재료를 갖고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할까. 어쨌든 우리는 이들 재료를 어떻게 하면 잘 배합하고 양념해서 독특하면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제주도 요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도전의 상황과 맞닥뜨렸다 할 수 있다. 그 도전의 일환으로 필자는 다음 장에서 ‘문화자원’이란 키워드와 함께 전지구화 시대 ‘제주知’ 확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1) 문화자원학

(2014년 2월), 제주학회.

8) 제주학 연구자 모임 편(2010년), 《제주학과 만남》 ‘머리말: 제주학 연구자 모임의 지향과 성과물 발간에 즈음하여’ 중에서.

2000년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문화자원학연구 전공’을 개설하며, 문화자원학의 구상을 밝히는 대목⁹⁾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핵심을 요약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자원학의 구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문학이 텍스트 연구 중심에 있었음을 재고하여, 인간의 문화를 ‘언어·형태·소리(ことば·かたち·おと)’라는 근원적 차원에서 다시 파악하고, 그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ことば)는 문서 및 문헌 연구와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언어’를 상대하면서, 독해훈련을 왕성하게 요구해왔다. 사실 먼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문자’, ‘문서’, ‘책’들은 미디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종이나 돌이나 나무라는 물질, 붓과 펜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 다시금 눈을 돌리면 ‘언어’를 통한 연구의 길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학문영역의 세분화와 정보전달기술의 발달은 ‘언어’와 이를 전달하는 (물질로서) 미디어와의 관계를 희박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형태(かたち)의 경우, 이것을 주로 다루던 기존 학문분야는 미술사학과 고고학이었다. 일단 이 영역에서 미술작품 또는 고고유물로 선정되면, 그 이외의 수많은 부수적인 ‘형태’는 시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형태’를 이루고 있는 주변 물질이나 물체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진다는 말이다. 그림을 예로 든다면, 그림은 본체에서 떨어져 판화나 사진, 인쇄물,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한 중심 이미지만을 논했던 것이 기존의 관심이라면, 여기서는 원래 회화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로서 그림의 형태(벽화, 벽장문 그림, 천정화, 족자, 두루마리, 소원풀이 액자, 액자화 등)나 물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형태’는 그것이 각각의 시대에 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소리(おと)의 경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형태’(신체, 악기, 음표, 악보, 음악 학교, 콘서트 홀, 레코드, 테이프 레코더, CD, 음악 전달 사이트 등)와 함께 태어나 전승되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자원학은 말하자면 기존의 학문 체계를 벗어나서, 체계화의 토대가 되는 자료군(資料群) 속으로 파고들면서 시작된다. 문화를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재고하고, 자료군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으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2000년 동경대학 ‘문화자원학연구 전공’이 개설되고, 2015년 4월에는 세부전공분야가 2코스로 개편되었다. ‘문화경영학 코스’가 그 하나고, 또 하나는 ‘문화자원학 코스’다. 어쨌든 이 분야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자료’가 아니라 ‘자원’이다. 자원은 영어로 ‘resources’다. ‘source’의 어원은 수원(水源)로 물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이다. 전자인 ‘문화경영학’은 이렇게 하여 ‘원천’으로 되돌아 와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료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음악 홀, 문화정책, 문화행정, 문화재보호제도, 저작권 제도 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하는 것이다. 후자는 다시 ‘형태자

9)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문화자원학연구 전공 홈페이지:

<http://www.l.u-tokyo.ac.jp/CR/outline/>

료학’과 ‘문자자료학(문서학, 문헌학)’ 전공으로 세분되고 있다. 특히, 후자에는 미학, 미술사학, 일본사학, 고고학, 사회학, 중국문학, 프랑스문학 등 다채로운 연구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가나자와대학(金沢大学) ‘문화자원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¹⁰⁾을 시각화한 것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림3. 가나자와대학(金沢大学) ‘문화자원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로드맵]

여기서는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① 형태문화자원, ② 전승문화자원, ③ 보호·계승·활용 분야로 세분되어 있다. ①과 관련된 학과로는, 미술사, 공예사, 고고학, 건축사, 경관사, 문화재학, 박물관 학 등이고, ②에는 언어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종교학, 예술학이며, ③에는 논리·윤리학적 기반, 정보, 지적재산법, 세계경영론 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적어도 기존 인문·사회과학 세부 전공들이 ‘문화자원’이란 사유를 중심으로 횡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맥락에서 미학(예술학)을 전공분야로 하는 필자의 경우는 제주도 전승의 ‘형태’자료(시각자료)에 관심을 두면서, 제주도 장소·이미지 변천사, 제주도 문화재와 축제, 신앙에서 문화로 재편되는 제주굿, 그리고 장소의 기억 등의 연구주제를 어떤 매체와 연계하여 전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2) 문화자원 vs. 마을자원

문화자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고에서 문화자원은 인간의 문화를 근원적·학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개별학문영역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생활세계 속에 그 지적 가치를 발현하는 것으로, 그것은 테크놀로지(도구, 기술, 사용법)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생활세계 속 지역-마을자원을 ‘문화자원’의 원천(sources)으로 보고, 그것들의 문화자원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사실 이 구상은 마을자원의 개념과 범위를 중심으로 제주도 마을자원의 구성조직과 가치를 분석한 정광중 교수의 논문¹¹⁾으로부터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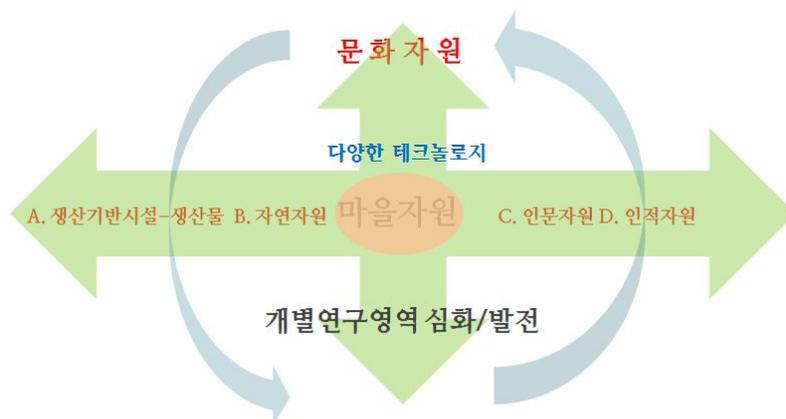
10) <http://crm.hs.kanazawa-u.ac.jp/crs/>

11) 정광중(2010)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원의 구성조직과 가치화 분석 방향: 성읍민속마을의

정광중에 따르면 “마을자원이란 일정한 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거나 전승돼온 유무형의 자원으로서, 해당마을을 널리 알리고 마을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요소”(정광중, 2010: 143)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마을자원의 1차적인 구성 조직의 방향은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경제의 활성화 또는 마을 내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아래의 4가지 부분을 반영을 하여 접근하고 있다. 즉,

- A. 생산기반시설과 생산물(해당마을)
- B. 자연자원(지형적, 지질적, 식생적 특성과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구성요소)
- C. 인문자원(인문환경 구성요소)
 - 유무형의 역사적·문화적·민속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
 - 경관적·건축적 특성, 미적 가치를 지닌 자원적 요소.
- D. 인적자원(마을구성원 및 주요조직체) 이 그것이다.

우선 주목할 것은 위의 마을자원을 이루는 4분야에는 ‘문화자원’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통 ‘자연자원’의 반대 개념으로 ‘문화자원’이란 개념을 떠올릴 수 있지만, 위 분류에는 ‘문화자원’라는 용어가 아닌 ‘인문자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분명 지리학계에서 통용하는 용어라 추정되지만, 저자가 이를 ‘문화자원’이라는 용어와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차별화했을 것이란 추측을 감히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중 교수의 논문은 제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문화자원론 사유에 더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즉, 마을자원을 축으로 심층적으로는 개별연구영역의 심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그것들의 가치화·활성화의 길을 동시에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문화자원화 관점에서 제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필자]

위 [그림4] 하단의 ‘개별연구영역심화/발전’ 영역은 앞서 [그림2]에서 제시한 ‘기존 제

사례를 통하여>, 제주학 연구자 모임 편(2010년), 《제주학과 만남》에 수록됨.

주학 범위와 위상'을 넓히며 자료들을 끊임없이 발굴, 수집, 분석, 기록, 분류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림4] 상단 '문화자원' 영역은 하단의 개별연구의 성과물들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방송, 영화, 인터넷' 등으로 재탄생하는 장이다. 이렇게 해서 재탄생한 마을자원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공동체의 문화자원이 되는 셈이다.

또 인적자원 측면에서 볼 때, 마을자원으로서 인적자원이 '마을구성원 및 주요조직체'라면, 개별연구 영역에서 인적자원은 각 분야 연구자들이며, 문화자원 영역에서 인적자원은 공동체의 규모와 특성 및 어떤 문화자원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문화정책가, 문화산업 종사자, 문화상품 제작자,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 예술가 등등이다. 특히, 그림 상단의 문화자원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마을구성원~연구자~문화정책가 및 예술가 모두가 공동체 지(知)를 발굴·생산·확립·통합·공유(네트워킹)하는 주체들이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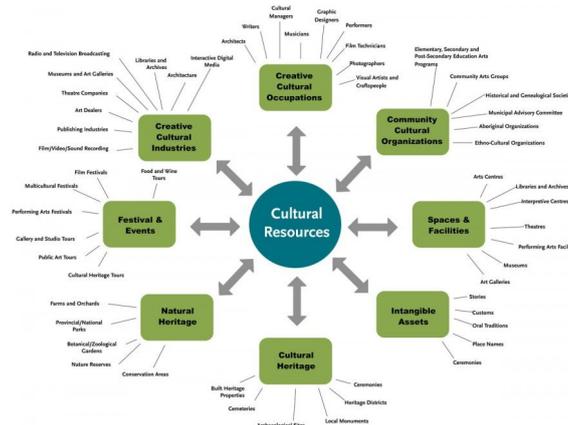
여기서 캐나다 출신의 범국가적 공동체 문화발전 및 문화정책 연구자인 그레그 백커(Greg Baeker)의 말을 인용해보자.

공동체들의 문제는 문화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상이한 활동 주체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과 목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작업의 첫 단계는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기존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을 문화자원체계(Cultural Resource Framework), 즉 문화자본의 범주들을 제어하는 일관된 시스템에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²⁾

한편, 그레그 백커(Greg Baeker)는 최근 발표에서 문화자원범주를 창조문화직업, 창조문화산업, 공동체 조직문화, 축제&행사, 공간&시설, 자연유산, 문화유산, 무형자산으로 설정하고, 각 범주를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그림5].¹³⁾ 가령, 창조문화직업인으로는 건축가, 작가, 문화기획가, 음악가, 그래픽 디자이너, 퍼포머, 필름기술자, 사진가, 시각예술가&제작가(장인)을 들고 있고, 창조문화산업으로는 쌍방향디지털 미디어, 건축, 도서관, 고문서, 라디오&TV 방송국, 박물관, 미술관, 극단, 미술상(화상), 출판사, 필름·비디오·소리 녹음기술 등을 들고 있다.

12) Dr. Greg Baeker가 2010년 11월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간된 '문화자원지도(Cultural Resource Mapping)'를 설명하는 대목; (원문) "The problem in communities is not a lack of information on culture but rather that information is collected in different agencies, in different ways and for different purposes. The first step is therefore the consolidation of existing data from multiple sources and coding that data accordingly, based on a consistent set of categories of cultural resources called the Cultural Resource Framework (CRF)." <http://www.hastingsculturalplan.com/definitions-and-resources/definitions/cultural-mapping-cultural-resources/>

13) Greg Baeker의 발표원고 'Cultural Planning, Cultural Mapping and Culture-Led Economic Development' (2014년 2월) 중.



[그림5. 그레그 백커(Greg Baeker)가 제시하는 문화자원범주]

사실, 위의 백커(Greg Baeker)의 문화자원범주는 앞서 언급한 정광중 교수의 마을자원의 4분류와 겹치고 있다. 물론 문화자원범주 설정은 각 공동체의 환경 및 규모 그리고 목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이란 틀에서 공동체-마을자원으로의 접근은 ① 공동체 구성원 및 외부인들로 하여금 해당 공동체의 지(知)를 증진시키고, ② 공동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③ 각 문화자원범주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공동체문화의 ‘문화자원화’가 궁극적으로는 상업화, 대중화, 관광산업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아이반 개스켈(Ivan Gaskell)은 1991년 논문 ‘이미지의 역사’¹⁴⁾에서 1980년대 영국의 “문화유산산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로버트 휴이슨(Robert Hewison)의 저서 《문화유산산업: 쇠잔하는 기후 속의 영국》¹⁵⁾를 소개하고 있다. 개스켈에 따르면 문화유산산업은 시각적 미디어를 통해 ‘즉석에서의 반응’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거는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비분석적이며, 이 경우 변화의 프로세스로서의 역할은 끝이거나 끝을 내야함을 암암리에 의미한다.¹⁶⁾ 이를 로버트 휴이슨의 맥락에서 말하면, 문화유산산업은 역사적 근거 또는 정확성, 논쟁, 시대구분의 엄밀정보보다는 과거를 말끔히 포장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역사의 상업적 묘사에만 집중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역사는 학문적(정확성과 논쟁을 근거)이라기보다는 대중 편향적(흥미 분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관광산업을 위시로 일부 마을자원을 역사와 단절시키고 관광상품으로 포장해온 온 작금의

14) 피터 버크(Peter Burke) 편저, 1991,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Cambridge, UK: Polity Press)에 아이반 개스켈(Ivan Gaskell)의 논문 ‘History of Images 이미지의 역사’가 수록됨. 이 편저는 1996년 일본에서 《ニュー・ヒストリーの現在：歴史叙述の新しい展望》(京都:人文書院)에서 번역·출간됨.

15) Robert Hewison, 1987, *The heritage industry: Britain in a climate of decline*, London: Methuen London.

16) 아이반 캐스켈(Ivan Gaskell) 논문 ‘History of Images 이미지의 역사’ 일본어판 인용. p.222.

제주도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우선 본고의 제목이기도 한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는 마을자원을 축으로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 생산·축적된 자료군(資料群)으로부터 문화자원범주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생활세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신할 줄 아는 집단적 지식(know-how)이라 정의해 본다. 이 과정에는 기존 자료군을 체계적으로 식별, 기록, 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발신 목적에 따라 매체 선정이 달라진다.

여기에는 금석문, 회화, 기록사진, 마을지도, 학술지, 사전, 지지(地誌), 마을자원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 영화, 박물관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디지털 문화사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인포그래픽스(information graphics)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까지 포함된다. 사실 문화의 생성·변화·쇠퇴 그리고 그 가치의 (재)발견은 테크놀로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자원은 공동체 삶의 기록, 보존, 분석, 발신, 공유의 테크놀로지 그 자체라 볼 수도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를 알리는 다양한 매체와 시도들¹⁷⁾이 있었다. 그것들 중 최근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제주해녀 ‘인포그래픽’ 제작하여 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에 소개하고 있다. 이를 다룬 기사도 몇몇 있는데, 이들 중 하나(제주 뉴시스, 2015년9월10일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국민들의 제주해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그래픽은 포스터 형식의 ‘인포그래픽’과 영상 형식의 ‘모션인포그래픽’이다. 인포그래픽은 친근한 해녀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녀의 역사에서부터 도구와 불턱 등 10개의 화면으로 구성했다. 모션인포그래픽은 인포그래픽에 음향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삽입해 해녀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제주해녀 인포그래픽’에 대해선 심포지움 때 참석자들과 함께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은 지역문화 연구 및 교육자, 학회, 문화행정·정책가, 지역문화예술인, 큐레이터, 토착문화전승단체, 출판인, 엔지니어 등등 공동체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시 방문객을 위한 단순

17) 문제는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생산되었느냐, 그 목적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관광이냐, 체계적인 지식생산과 공유냐에 따라 해당 자원이 단순한 소비자자원일 수 있고, 또는 관광자원 또는 문화자원이 될 것이다.(필자)

한 제주홍보가 아니라, ① 제주를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위하여 ② 제주 중심적 접근(Jeju-centered approach)으로 제주의 근원에 파고들며, 이를 통해 ③ 제주의 과거-현재-미래를 횡단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문화자원을 함께 만들 수는 없을까. 물론 이 과정에서 지(知)의 생산자와 공유자들은 편협한 지역주의이니 배타적 향토주의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지'>의 확립과 관련해서, 필자는 2014년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立命館大学) Art Research Center가 공개한 곤도 유타카(近藤豊)의 6만장 사진자료(1930년대~1970년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를 일례로 들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옛 사진으로부터 장소의 정보를 시각적·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GIS 및 웹 맵을 이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¹⁸⁾이다. 주요 촬영장소는 교토부가 26,411장으로 제일 많고 한국사진도 1,459장 있다 밝히고 있다. 촬영대상물의 명칭, 연월일, GIS를 이용한 위치정보, 지도로부터 촬영장소 검색, 그 장소로부터 촬영된 사진들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장소 및 경관 변천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더듬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자원 구축 프로젝트는 사실 제주도 장소의 변천과 장소의 기억에 관심을 갖고 '형태'자료를 수집·분석해 오고 있는 필자에게는 커다란 자극제이기도 하다.

글을 마치며

이상, 기존 '제주학' 패러다임들 및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을 재조명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지'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에 대한 필자 나름의 논점을 전개해 보았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는 서로 다른 방식과 목적을 가진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게 노출되며 기록되었고, 이 기록물들은 내외부적으로 적잖게 유포되어 제주도 이미지 메이킹에 기여해 왔다. 이 단계에서 제주는 유배지, 난파지, 기항지, 반란지, 정복지 등으로 묘사되어 문화적 요소와는 거리가 먼 이국적 섬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제주기록물은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지, 이주지, 국제행사장, 평화의 섬, 전통문화의 섬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급부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본 논문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지'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글에서 다룬 핵심논점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① (제주학 관련) 기존 제주학 연구의 성과물들이 공동체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파

18) <http://www.arc-ritsumei.com/#!about/c1enr>

급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학제적 연구 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형태, 소리, 언어, 경관, 생태’ 등등의 주제로 재편하여 개별학문들 간 횡단하고,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② 문화의 생성·변화·쇠퇴 그리고 그 가치의 (재)발견은 테크놀로지(도구, 기술, 사용법)의 매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삶의 기록, 보존, 분석, 발신, 공유의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가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이다. 그것들은 도서관, 고문서관, 박물관, 미술관, 방송,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회에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기록, 보존, 분석, 발신, 공유의 테크놀로지는 문화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

- ③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지’>의 확립은 지역문화 연구 및 교육자, 학회, 문화행정·정책가, 지역문화예술인, 큐레이터, 토착문화전승단체, 출판인, 엔지니어 등등 공동체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지’>는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 생산·축적된 자료군(資料群)으로부터 문화자원범주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생활세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신할 줄 아는 집단적 지식(know-how)이다. 우리가 공유(네트워킹)할 것은 바로 이러한 지(知)이고 그 자체가 문화자원이다.